

잘못 알았던 메시아, 복음이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이사야 7:10-14, 마태복음 28:18-20

정윤돈 목사님

(찬양대의) 찬양 수준이 높아서 (그 찬송의 작가인) 루터가 좋아할 것 같다. (웃음)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언약을 발견해야 되겠다. 종교개혁주일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개혁자였음을 느끼게 된다. 마태복음을 쪽 읽어보면 여러분이 눈치를 잘 못 쫓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복음이 나온다. 앞이든 뒤든 거의 복음이다(요1:12, 요14:6).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기록 목적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유대인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그동안 기다려 왔다. 군사적,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나라가 여기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들과 안 맞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곳에서는 산상보훈처럼 고도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이다.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너희는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아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외식되고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 밝히고 있다. 심지어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는 사실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유대인이려면 ‘예수를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둘 중 하나다. 죽이려 하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선민사상을 깨뜨려 버렸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8:18-20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자기 전통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었다.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인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 고백을 모르고 했다. 알고 한 게 아니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 국가의 회복을 여전히 바라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는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 수십 년 후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해되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역사였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외웠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일차적 독자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2차 독자는 누구였는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3차, 4차는 누구였는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다. 지금 천주교와 한국 교회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renovation). 원래의 모습,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reformation). 하나님이 주신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 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복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없애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츠빙글리 같은 개혁자는 오르간, 가운 같은 것을 다 없애려고 했다. 복음 없이 그것만 화려하게 갖추고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전혀 약기를 하지 말자고 했다. 복음도 모르고 약기 연주하고 노래부르고 하는 것이 형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 복음과 멀어지게 된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모든 형식을 없애 버려야 한다. 총회도 없애 버려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도 형식으로 가고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이 사람은 모든 형식과 제도를 없애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개혁해야 한다. 정확한 복음 아닌 모든 형태는 없애 버려야 한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된다. 없애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형식은 독이 되고 암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 형식으로 가니까, 이것을 깨뜨리도록 마태가 노력하는 것이다.

1.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던 유대인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성경 읽다가 낙심하지 않냐? 낱고 낱고 낱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해해서 팀 사역을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누리고 믿은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내가 경험한 말씀의 성취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 사실은 다 축복의 발견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이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어렵지 않다.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은 줄 수가 없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기들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는가? 다말이다. 율리, 도덕적인 것과 맞지 않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 않나. 기생 라합, 우리아의 아내. 다 죄인의 족보 아닌가. 그러니까 마태에게, ‘너희가 족보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바벨론 이거(移居) 이전 14대, 이거 이후 14대로 연결되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다윗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찌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잘 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만으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1) 첫 번째로,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던 사람이 헤롯왕이었다. 헤롯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줄 생각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인 것이다.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가? 여러분 몸에, 삶에 안 좋은 것만 빼앗아가신다. 독이 되는 것만 빼앗아가신다. 여러분 인생에,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손해 볼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할 때다. 만약 지금이 로마 시대라면 나는 우리 다같이 순교하자고 설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러 가야 할 시대다. 램턴드들이, 중직자들이 전문성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간표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약 붙잡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또한 알아야 한다. 그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삶에 개인화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이가 90세인데 벤치기업을 창업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때는 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표 아닌가.

(2)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틀과 함정, 울무에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선교를 못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선교를 이야기하셨는데 묶여있는 것이다. 진리 아닌 것에 묶여 있으니 자유가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다.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 높은 가문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종교인들이 다 타락하는데 유일하게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다. 그 아들 세례요한이 어느 날 성령충만을 받고 광야에서 메시아를 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 최고위급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 광야에서 실천하면서 메시아를 하니까 무시를 못 한다.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우리도 세례를 받아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 보니까 따듯하게 맞아주시는컸냐, 마태복음 3:9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욕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연 것이 세례요한이었다.

(3) 세 번째로, 열두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청탁하고, 다투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다독여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4:19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생령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들은 정말로 로마와 세계를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제자들은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자리를 두고 싸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것이다.

(4) 네 번째로, 사람들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용서, 이런 것은 돈으로는 할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3-12에는 복이 나온다. 사실 아홉 가지 복인데, 사람들은 팔복이라고 주로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은 하늘에 전부 축복으로 쌓이는 것이다. 우리가 민폐를 끼치고 예의 없이 복음 전하다가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용히 친구에게,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다. 그렇게 하다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며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5)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을 고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마태복음 8:15, 9:6, 17:18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에게 계속 어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26에 보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

게 계속 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다시 보시기 바란다.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보라. 마태복음 9:29-30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눈을 밝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누가 물 위를 걷는가. 마태복음 14:21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오천 명을 먹였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삼단논법의 논증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전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이만회도 문선명도 안상홍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속지 마라. 이만회는 절대 아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만회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한 가지만 알면 헛갈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쉬운, 단순한 진리가 안 믿어지게 된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게 하실 뿐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셨다(마14:26).

(6) 유대인들은 구약성경과 율법을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구약은 신약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었음을 몰랐다. 그 증거가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였다. 구약시대에 이사가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앗수르에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독립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하스왕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앗수르와 평화조약을 맺고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하는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 신경 쓰세요. 나는 그냥 앗수르와 협약하고 끝낼 거예요’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가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의 구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는 사실은 젊은 여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징조가 되겠는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뭐가 특별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70인 역으로 번역할 때 ‘처녀’라고 밝혀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바로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야이셨던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깨달아라’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메시지를 던졌다. 대부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거부했다. 전통, 습관이 함정, 울무, 틀이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그 욕심, 자리, 위치, 서기관 바리새인의 이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2.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

큰 두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사단을 섬기면서 떡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되고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희를 이기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4:3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유희이 안 된다. 우리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가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쁘게 시험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악을 올리는 것이다. “야, 네가 네 능력을 해 봐라. 말씀, 예배, 기도가 무슨 소용이나. 너 학벌 있잖아. 경험 있잖아. 머리 좋잖아. 네가 한 번 해 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4:6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자기가 무리하게 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다. 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만 설교하려고 해도 몇 시간 해야 한다. (웃음) “만일 내게 없으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정말 화 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 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들어도 속지 말고 연약만 붙잡아라.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라.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게 교만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다. 그 상태를 가지고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2)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영적인, 인격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이다.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21가지 삶의 본질(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천명·소명·사명, 당면·필연·절대, 일심·전심·지속, 오직·유일성·제창조, 24·25·영원, 각인·

뿌리·체질)를 말씀하는 것이다. 9가지 포인트(위·아래·옆, 깊이·높이·넓이, 과거·현재·미래)를 모르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서 이상한 길로 간다.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얼마나 깊이, 높이 보았는가. 나는 목사님들에게 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있는 설교 베가면서 노력도 안 하는데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안 하면서 ‘예수면 다 된다’고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돌아만 다니면 전도에 방해만 된다.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9가지 포인트, 21가지 삶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수련회 메시지에서 산상보훈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16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다.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착해질 수가 없다.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착해지는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안 그러면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5:20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력하고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가? 아니다. 예수 믿을 때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구원받았다면, 모든 면에서 불신자보다, 종교인보다 뛰어나야 한다. 우리의 삶의 절대 목표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다. 성도들이 예수만 믿고 교회만 왔다갔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듭나고 달라져야 한다. 예수를 믿고 영혼이 바뀌었다면, 우리 수준과 틀을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참된 문이 열리게 된다.

(3)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24:14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온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거의 증거되었다. 말세지말(末世之末)이 왔다. 개인의 끝은 내일 올 수도 있다.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4)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액세서리로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25:40과 25:45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복지 분야 특강을 하면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읽어준다(마25:45,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 정말 지옥 간다는 말인가? 그 정도로 하라는 말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없이 발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원수처럼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 엘리베이터 두 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된다. 계단도 양쪽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다니면 된다. 그렇게 계속 가네 된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지옥 간다’는 정도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결단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혹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상대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간다. (웃음)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받았지만, 그 정도 마음을 가지지는 것이다. 지금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말은 하는데, 사실은 싸우고 이단 만들고 분쟁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다른 교단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 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사랑을 가진 한 팀만 나오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정치인 중에, 경제인 중에, 교회 안에 이 팀 한 팀만 진정으로 나오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첫째,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며, 참 왕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둘째,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셋째, 모든 족속을 제자삼으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민족 선교와 세계 살리기 위한 종교개혁과 영적 결단을 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이다. 유대인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을 몰랐다. 이 두 가지를 몰랐던 것이다. 다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 우리가 해야 하는 절대 현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메시야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당연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을 누리라는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